

계시록 1장

머 리 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멀리하라. 계시록은 봉한 책이므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했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이상한 일들을 저질렀었다. 그러나 이 책이 쓰여진 의도는 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 계시록 강해는 지난 몇 년 동안 연구한 개념과 결론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한 것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각자가 성경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바랄 뿐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17:1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살전5:21) Calvary Chapel 척 스미스

경고의 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흰 수염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긴 도복을 입고 가슴과 등에 광고판을 달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들의 광고판 앞면에는 “회개하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그들을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거나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나 관념을 비웃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말을 광신적인 늙은이나 소위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나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 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다. 이 사람들은 지구의 환경상태와 생태학을 공부한 사람들로서, 하나같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14년 혹은 40년 가량밖에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천연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연의 균형을 주의깊게 연구하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태학자들의 이런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인간은 정말 자연의 균형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동물을 멸종하고, 에너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새들은 달걀 껍질에 침전된 살충제(DDT) 때문에 알을 부화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지구의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를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들만이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만일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게 되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그 문명도 끝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하는 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들도 핵무기 비축에 힘쓰고, 그 핵무기들을 미국에 사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말로 위협스러운 상황은 현재 핵무기를 소유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될 수 있음에도 어마어마한 살육 무기를 만들어 내는 일에 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생태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 외에 세계 정세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세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도화선은 중동 지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언제 큰 불더미에 휩싸이게 될지 모른다. 종말이 가까웠다.

인류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대치하고,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를 잇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 아닌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전부터 해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답은 이렇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과 그 의미가 다르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코스모스(Kosmos)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코스모스란 ‘세상’이라는 뜻의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 ‘통치권의 체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종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세상 통치 체제의 최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행해왔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인간은 스스로 통치하려 했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고자 했으며,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통치 체제를 시도해 보았다. 평등과 정의를 추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통치 체제를 바꾸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의 결과 인간이 부패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생긴 공산주의 체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형태로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세상의 외침, 사랑에 대한 세상의 갈구,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자는 세상의 함성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체제를 고대한다. 그것은 전세계를 다스리는 한 왕국이다. 우리는 우리 왕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 의가 온 땅을 덮기를 기다린다. 장차 임할 이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예언서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啓示)

성경은 유일하며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다르다. 이 책은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지난 수 천년 동안 성경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망치질을 당했다. 그 망치들은 남아 없어졌지만 성경은 아직도 존재하다.

성경은 2,0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책으로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책이다.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요한이 천사로부터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19)는 명령을 받고 그가 환상중에 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1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와 교회의 봉사에 관한 일, 세상에서 감당할 교회의 증거 등에 관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들을 요한이 기록한 부분(2-3장)이다. 이 편지들은 교회 시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마지막 세번째 부분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한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4-22장), 이 예언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 속한 일이다.

계시록 1:1-2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1:1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이다.

시청 앞에 제작되기 직전의 동상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시장이 나와 연설을 하고, 그 동상을 제작한 예술가가 그 동상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윽고 극적인 순간 덮고 있던 막이 벗겨진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후로 시청 앞을 장식하게 될 동상을 보게 된다. 가려진 막을 벗기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이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 눈과 마음에 막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예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14:1).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날을 포함한 마지막 세대에는 그분의 귀하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1: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실히 나타내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살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1:1)

1절은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경로를 알려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앞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관해서 성경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히12:2)라고 했다. 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께서 영원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자리를 그에게 보여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그분의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주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한 것이다.

요한은 첫번째 서신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1:1-3)고 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신 바를 충실히 기록했다. 이 계시는 음성만이 아니라 환상으로도 주어졌다. 요한이 환상중에 본 영적 실체들은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가 본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계시록 1:3

계시록에는 축복이 함께 담겨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1:3)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일곱 교회에서 읽혀지기를 바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각 교회를 위한 사본도 만들어서 보냈음이 틀림없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서점이 없었다. 글쓰는 종이도 매우 귀했다. 초기에 글을 쓰는 종이로는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있었는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를 귀히 여겼는데, 가격을 올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글쓰는 종으로 양피지를 발명해 냈으나 그것 역시 귀했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형 도서관이 있기는 했지만 개인이 책을 소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나마 개인적인 편지를 쓸 도구를 갖추고 있었기에 각 교회에서는 편지의 사본을 받으면 그것을 교회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거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미래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과거적 해석법**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로마 제국에 맞서 대항한 교회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보는 것이다. 즉 계시록은 여러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그 예언은 초대교회의역사에서 이미 완성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역사적 해석법**이 있다. 이는 계시록을 세계의 체제에 대항한 교회의 투쟁사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언들은 로마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본다.

셋째로 **영적인 해석법**이 있다. 이 해석법에 의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혼동이 되어 아무도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말씀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모든 사건들을 영적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나 교훈이 훼손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적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미래적 해석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관점이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를 의미하며 또 의미하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거나 어떤 의도에 맞추려고 왜곡시킬 필요가 없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계시록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1:4)

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온다. '일곱'은 완전한 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또는 총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칠 일이 일주일이고 일곱 음표가 한 음계를 이루며, 무지개에는 일곱 가지 빛깔이 있다. 따라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일곱 교회는 작은 원을 이루고 있다. 소아시아에는 이 일곱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다. 그 중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일곱이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일곱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또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뇌성,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등이 나오는데, 모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나타낸다.

여덟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여덟 번째 날은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고, 일곱 음표 후의 여덟 번째 음표는 새로운 음계를 시작한다. 헬라어의 자모(字母)에는 각각 고유한 수가 매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총 숫자가 모두 여덟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다(Jesus, Christos, Kurios). 그분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 오실 분이시다. 또한 동시에 계신 분이시다. 만물은 하나님과 '영원한 현재'의 상태에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라는 구절(계시록3, 4, 5장에도 언급되어 있다)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가리킨다. 이사야서는 성령의 일곱 가지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사11:2)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1: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충성된 증인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8-9)라고 하셨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의무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행1:8).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martus)’인데 여기서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 ‘martyr’가 파생되었다. “충성된 증인(순교자)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먼저’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우선 순위의 의미**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탁월함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두 번째 죽음을 맞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1:5). 이는 왕국 시대에 예수께서 갖게 될 위치와 칭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시8:5) 주셨다. 세상은 혼란하고 사단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오실 때에 임할 영광의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

계시록 1:5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 사단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려고 애쓴다. 사단은 “너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는 틀렸다(실패했다)! 너는 하나님의 규례에 맞추어 살지 않았다. 예수는 너 같이 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롬5:8).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분을 거역할 때에도 사랑하셨고 위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좇아 행하려고 한다면,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체험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1:5)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간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6).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계시록 1:6-7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좀더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삼으신 그에게”) (1:6)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열두 개의 돌이 박힌 흉패를 착용했다. 둘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리하고 계시다.(히4:14)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백성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백성들 앞에 서게 된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1:6)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인간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인간에 의한 세상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24:22). 우리는 지금 감해지고 있는 날들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나니(유 1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골3:4). 그분은 영광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성경에는 우리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를 드리고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슌14:16). 그 때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단할 것이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1:7)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30).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예언했다(단7:13).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고 구름으로 가려졌는데, 그 때 천사들(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다(행1:11).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에서 “구름”은 성도들의 구름, 증인들의 큰 구름으로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은밀히 오시지 않을 것이다. 비밀스러운 작은 방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며, 선택받은 특정한 몇 명만 그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그분의 오심을 알게 될 것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8년, 1878년, 1917년, 1918년, 또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많은 연도와 날짜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방으로 오실 것이며,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24:26),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1:7)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를 찌른 자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스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이나”라고 물을 것이며(슌13:6), 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라고 했다.(슌12:10)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자기 민족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한 것과 그 때까지도 여전히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음을 인하여 매우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1:7). 스가라는 그 슬퍼함이 죽은 독자로 인한 여인의 통곡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속12:10).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소경됨을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다.

계시록1:8-9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원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스스로를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라고 하셨다. 이것은 영어의 A와 Z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끝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계시록 21:6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어서 요한은 자기가 처음으로 이상을 볼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1:9)

요한의 아름다운 겹손이 보이는 구절이다. 그는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말하지도 않고, 혹은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계급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두 한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람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행10:34)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드와이트 무디(Dwight Moody), 찰스 피니(Charles Finney), 존 웨슬레(John Wesley), 존 녹스(John Knox),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게 기울이셨던 관심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형제요 동참하는 자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고전3:9).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따라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 우리가 자기 앞에 제사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행14:14-15)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눈가림만 하여 적당히 대할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신다. 하나님께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강제로 권할 수도 없다. 그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1:9)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이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약5:7)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라고 격려했다(베후3:8-15). 또한 바울은 인내하라고,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다.(살전1:10)

로마 제국하의 첫번째 **대박해**는 네로 정권 때 있었다. 그 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당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때 죽었다.

그 후 도미시안(A.D. 81-96년) 황제 때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났다. 약 4만 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 갔다. 요한이 밧모 섬으로 귀양간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그 곳에서 요한은 이상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밧모 섬으로 추방되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기도 했으나 굴하지 않았기에 에게 해에 있는 에베소에서 약 32마일(약 51.2Km) 떨어진 소아시아 해안의 바위가 많고 험준한 작은 밧모 섬으로 보내졌다.

그가 밧모 섬으로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박해와 소란함으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그를 옮기신 것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밧모 섬에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밧모 섬에서(A.D. 96년)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 계시록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

계시록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주일에 그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덟 번째 날인 한 주간의 첫번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이 날이었고, 교회가 함께 모였던 날도 이 날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하기를 “매주일 첫날”에 함께 모였을 때 연보를 내어, 자기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고전16:1-2).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떤다.(행20:7)

초대교회사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불렀는데, 이 날을 안식교인들은 콘스탄틴 대제가 제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한다. 실제로 콘스탄틴 대제보다 2세기 앞선 터툴리안은 주일이 교회가 성찬식을 가지는 유일한 날이었다고 썼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날 부활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그의 논리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일주일의 첫날이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헬라이어 성경에 근거해서 1:10을 번역하면 “주의 날에(on the Lord's day)”라고 하기보다 “주의 날 안으로”(unto the day of the Lord)”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시간의 방으로 데려가셨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요한을 마지막 시대로 옮겨가신 것이다. 거기서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전쟁과 심판들을 직접 보게 된다. 예수님은 요한을 미래의 주의 날로 옮기셨고, 요한은 자신이 정말로 그 때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기록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 때 그것 역시 일종의 시간의 방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에 앞서 주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옛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곳에서 변화되셨다.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거기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마16:28 ~ 17:4)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들은 시간의 방에서 미래를 본 것이다. 그들은 장래에 있을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다.

어쩌면 요한도 이렇게 주님께 이끌려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므로 요한을 잠시 영원의 차원으로 이끌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분은 전지하시므로 모든 것을 아신다.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우리들 삶은 그분께는 마치 영화의 재상영과 같다. 따라서 요한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았을 가능성도 많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한다. “주의 날 안으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1:11-16

가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1:10-12)

“일곱 금촛대”는 광야에서의 성막을 연상시킨다(출25:31-39). 성막의 성소 안에 비치된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금촛대가 있는데, 이를 “황금 메노라(Golden Menorah)”라고 부른다. 그것은 본줄기에서 가지가 셋씩 양쪽으로 나와 있는 나뭇가지 모양의 금촛대로서, 성막 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일곱 가지에는 촛대로 쓰이는 작은 등잔들이 달려 있고 이 촛대는 성소를 밝혀주고 있다.

이 일곱 금촛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곧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일곱 금촛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고 말씀하셨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1:13)

일곱 개의 금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이는 “인자”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라고 하셨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한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단7:13-14). 계속해서 요한은 인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1:13-16)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신 주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마18:20)고 하셨다. 요한은 교회 사이에 서 계시는 주님을 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주님은 지금도 일곱 개의 금촛대, 즉 모든 세대의 주님의 교회 사이에 계신다.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개의 별을 보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참조. 계1:20). “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전달자(messenger)라는 의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전달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쁨과 위로가 되는가!

이 부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부분이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적으로 묘사했다(단7:9-10). 계시록 1:13-16까지의 말씀은 고난받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중에 계시는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은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24)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그 영광이 다시 되돌려져서 우리가 영광스런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신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뵈게 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 주님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과 같이 빛나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처럼 희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히4:12)

계시록 1:17-18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1:17)

요한은 주님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는 그 모든 환상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받고 엎드려졌다.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단8:27). 다니엘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은 후 실제로 앓았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육체에 가시를 받았다고 했다.(고후12:7)

본문에 의하면 요한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계시록을 읽어나가다 보면 요한이 여러 번 엎드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경험을 겪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영적 능력의 체험이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17-18)

예수님은 음부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분은 승리하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11:26)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라.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61:1). 이미 죽어 무덤과 음부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음부(헬라어 Hades)를 열어 갇혀 있던 영혼들을 놓아주셨다.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가신 주님이 먼저 땅 아랫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했다. 주님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셨다(엡4:8-9). 베드로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다(벧전3:19). 예수님은 음부를 열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구하셨다.

계시록 1:19-20

계시록의 열쇠가 여기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19)

'장차'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 타우타(meta tauta)'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일 후에'라는 의미이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요한이 본 것으로 계시록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환상 부분이고, 둘째는 "이제 있는 일", 즉 계시록 2-3장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후(meta tauta)"에 될 일로서 요한이 보는 미래의 사건들이다.

계시록 4장이 'meta tauta', 즉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렇다면 무슨 일 후라는 말인가? 교회의 일이 완성된 후라는 뜻이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meta tauta)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계4:1)

계시록 4:1부터는 미래에 관한,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의 증거가 이 세상에서 다 마친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다음과 방식을 따르면 계시록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요한이 본 것,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본 환상을 설명하신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1:20)

'사자(angels)'란 '전달자(messengers)'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일컫는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는 '전달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들', 곧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

"네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에서 '일곱 교회'는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 사실에서 이 메시지는 완전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지엽적인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 쓰여진 것이며, 당시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교회사의 일곱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셋째, 보편적 적용으로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메시지들은 많은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